

식민지 말 이중 언어 상황과 주체의 분열*

— 김사량의 「천마」를 중심으로

오 태 영**

요약

이 글에서는 김사량의 「천마」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 언어 상황과 일본문단에 통합되어가는 조선문단의 재편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의 존재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기 전쟁 수행을 위한 동화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기를 구축할 수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제국-식민지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는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국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문학의 일본문학으로의 복속을 말하는 식민지 문학장 내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김사량은 조선어 폐지와 일본어 전용이 주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어와 일본어, 두 개의 언어에 의한 창작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그런데 일본어와 조선어의 이중 언어 창작은 결국 제국-식민지 체제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할 뿐이었다. 따라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초과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있다. 「천마」의 현룡처럼 광기에 사로잡혀 분열하는 주체의 흔적들을 통해 체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전시총동원 체제, 문학장, 이중 언어, 주체, 분열

* 이 글은 2022년 1월 13일 개최된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미주연구소 &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공동주최 국내학술대회 〈언어와 경계지: 이주와 식민의 스펙트럼〉에서 발표한 「식민지 말 조선문학의 이중언어 상황과 분열하는 주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일본학술진흥회 다카하시 아즈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웹문예학과 조교수

목차

1. 식민지 말 조선의 위상 변동
2. 문학장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3. 이중 언어 상황과 언어 밖의 존재
4. 분열하는 주체의 불안과 광기
5. 식민지 말 문학자의 존재 방식

1. 식민지 말 조선의 위상 변동

식민지 말 조선문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민족문학의 관점에서 친일/반일, 협력/저항이라는 도식 아래 재단되고 평가 받았던 식민지 말 조선문학은 탈식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양가성·혼종성 개념에 기초해 제국-식민지 사이에서의 주체의 분열, 문화의 절합 측면에서 이해되었다.¹⁾ 여기에 비교적 최근 제국-식민지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식민지 말 조선인의 생명정치, 조선문학의 존재 방식에 끼친 영향을 규명한 논의들이 더해졌다.²⁾ 또한,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하 식민지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위상에 대한 논의³⁾가 이어졌고, 이러한 논의들의 결과 식민지 말 조선문학은 한국 근대문학 발전의 한 임계점이자 동시에 제국-식민지 체제하 재편된 식민지 문학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식민지 말 조선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관점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 ‘이중 언어(bilingual)’였다. 제국의 문화적 권역 내 식

1) 이에 대해서는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참고.

2) 이에 대해서는 황호덕, 『벌레와 제국—식민지 말 문학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 2011 ;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그린비, 2016 참고.

3) 이에 대해서는 오태영, 『오이디푸스의 눈—식민지 조선문학과 동아시아의 지리적 상상』, 소명출판, 2016 참고.

민지의 언어는 식민지인들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위의 열등한 ‘식민지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로 여겨졌다. 또한, 언어 자체가 권력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국의 언어로서 일본어는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탈각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권력어이자 문화어이기도 했다. 근대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공용어로서 일본어와 일상어로서 조선어가 혼재되어 있었지만, 제국-식민지 체제의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일본어/조선어의 이중 언어 상황은 지속되었다. 이는 문학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 및 전개 과정에서 ‘민족어’로서 조선어 창작이 주를 이루었고, 그것은 상실된 민족(성)에 대한 문학적 상상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가 조선의 위상 변동 과정 속에서 조선문화의 위상 또한 재편되었고, 일본어 창작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문학장의 이중 언어 상황은 문학자의 존재 방식 및 문학 생산의 조건들로 작동하였다.

식민지 말 조선문학(자)의 존재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조선의 위상 변동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제국-식민지 체제에 복속되었던 근대 한국은 1930년대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지리적·문화적 팽창 과정 속에서 그 위상에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은 새로운 지정학적 위상을 부여받았다. 단적으로 말해 그것은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의 위상은 대륙 전진병참기지로 위치 지어졌는데, 거칠게 말해 그것은 제국 일본을 구심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동심원적으로 재편해간 지역 질서의 자장 속에서 구축된 것이었다. ‘선만일여(鮮滿一如)’, ‘내선일체(內鮮一體)’,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榮圈) 등은 모두 제국 일본을 정점에 놓고 식민지 조선(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및 국가)의 위상을 재편하기 위한 이념이자 방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위상 변동 과정 속에서도 제국-식민지 체제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는 지속되었다. 그것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통치 질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여’, ‘일체’, ‘공영’ 등 동화 이데올로기의 술어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엄존하고 있었음을 확인케 한다. 식민지 말 제국 일본은 기존 서구 중심의 근대 세계 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고, 세계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의 제 민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지역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침략 전쟁을 영미를 중심으로 한 서양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아시아 국가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미화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바 또 다른 제국의 침략 전쟁일 뿐이었다. 따라서 근대의 종언과 도래할 현대에 조용해 세계 신질서를 건설하고자 했던 담론 체계는, 그리고 그에 기초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상은, 모두 전쟁 수행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던 것이다.

한편, 제국-식민지 체제는 식민 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낳지만, 근대 한국의 경우 식민지로 전락한 이상 국제법상 조선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조선, 조선인, 조선문화는 모두 일본, 일본인, 일본 문화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관부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는 조선인들이 검문·검색을 당하고, 도항증을 제시해야 했던 정황을 감안했을 때, 결코 조선(인, 문화)은 일본(인, 문화)이 될 수는 없었다. 식민 모국과 식민지의 통치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었고, 조선총독부의 총독 정치는 제국 일본의 국민이 아닌 식민지 원주민인 조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식민지 체제는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속에서도 제국을 구심점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처럼 제국-식민지

체제의 상호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위계화된 질서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지정학적 위상 변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공간 인식 및 경계 감각을 드러내는 명명법이 ‘내지(內地)’와 ‘외지(外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추진했던 일본은 옛 류큐 왕국의 영토였던 오키나와와 아이누 원주민의 땅이었던 홋카이도를 자국의 영토로 포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에 이어 조선을 식민지로 개척·경영하였다. 그때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는 내국 식민지로 위치 지어졌고, 타이완과 조선은 외지 식민지로 위치 지어졌다. 물론 이러한 내지/외지의 구분은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획 짓는 공간 분할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제국 일본=중앙/식민지 타이완·조선=지방이라는 동아시아 권역 내 공간 질서의 재편으로 확장된 것이었다. 따라서 제국-식민지 체제하 식민지 조선은 제국 일본의 권역(대동아공영권)을 구성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하나의 지방으로 위치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주변, 중앙/지방의 이분법적 공간 인식 및 경계 구획은 지리적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단위에서도 작동하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공간 인식은 식민지 조선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이전 왕조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정치 질서의 운용 과정 속에서 한양(서울)이 중앙으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식민지 체제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제국-식민지 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설치 및 대경성 계획 등 식민통치를 위한 도시 계획에 의해 경성이 식민지 조선의 중앙으로 재정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 정비, 교통·통신 시설의 구축, 오락과 취미를 위한 문화 공간의 건설 등 근대 도시로서 경성의 공간 재편은 그곳이 곧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근대적 문물을 수용해 새롭게 자기를 정립해 가고자 했던 근대 한국인들에게 경성은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는데, 이

러한 공간 인식은 경성을 넘어 근대화를 선취한 도쿄로 이어지기도 했다. 요컨대, 문명/야만의 도식 속에서 조선의 지방→경성→도쿄의 심상지리가 만들어졌던 셈인데, 이때 도쿄와 경성은 다시금 중앙과 지방으로 구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사이의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공간 인식은 식민지 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들에게 전유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종한은 중일전쟁 이후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전체주의적인 사회 기구에 있어서는 동경도 하나의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동경이나 경성이나 다 같은 전체에 있어서의 한 공간적 단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한다.⁴⁾ 새롭게 재편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상 속에서 기존의 도쿄(제국 일본)=중앙/경성(식민지 조선)=지방이라는 위계화된 공간 인식을 식민지 조선의 입장에서 전유해 전체주의 체제 내 도쿄 또한 하나의 지방으로 위치 지을 수 있다는 인식은 중심성을 해체하는 것을 넘어 중심의 이동, 나아가 중심의 무화(無化)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신지방주의론’은 제국의 권역 내 공간 인식, 새롭게 건설될 대동아공영권 내 식민지 조선의 위상 재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결국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식민지 조선의 로컬리티를 제국 일본의 경계 안에서 규정하는 한 결국 그것은 제국의 경계 속에 포섭되고 마는 것이다.⁵⁾

여기에서 제국-식민지 체제기, 특히 식민지 말 조선의 위상 변동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것은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위상이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재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존의 중앙/지방의 공간 인식과 경계 감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식민지 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 과정

4) 金鍾漢, 「一支의 倫理」, 『國民文學』, 1942.3, 36면.

5) 오태영, 앞의 책, 105면.

속에서 식민지 조선은 동아시아의 여타 식민지 지역 및 국가들과 달리 소위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을 내세워 내선일체 이념 등을 기초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해갔다. 그것은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의 논리 속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조선이 중요한 역할과 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식민지(인, 문화)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망을 추동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지방, 외지를 넘어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재구축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문화와 문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 문학장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면서 식민지 조선은 전시총동원 체제에 접어들었다. 이어 1940년 신체제 선포 뒤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산하였고, 식민지 조선인의 삶의 조건들은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의 논리 아래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전쟁 동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실시했는데,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과 1940년 국민총력운동 등 2개의 ‘국민동원’이 핵심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 주도의 국민동원은 관세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국내와 다른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전쟁에 동원될 조선인들에게 참정권 등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였다.⁶⁾

하지만 전쟁 수행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제국 일본의 신민이

6) 松本武祝, 『戰時期朝鮮における朝鮮人地方行政職員の「對日協力」』,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7: 支配と暴力』, 岩波書店, 2006, 225-227면.

자 친황의 적자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공포와 제3차 조선교육령 발표, 국가총동원령에 이어 1942년 5월 각의 결의에 따른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 등 일련의 조치들은 전시총동원 체제하 식민지 조선인의 삶의 조건들을 재편한 것이었다. 단적으로 말해 조선인들에게는 전장(戰場)의 군인과 그에 복속된 총후(銃後)의 지원자로서의 삶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전선/총후로 재편된 제국의 권역 내 전장의 스펙터클한 재현과 혁혁한 전과(戰果)가 넘쳐났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 가족을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 죽을 것을 요청받았으며, 총후의 생활은 전시 통제 경제하 동원의 논리와 문법에 의해 운용되었다. 동원의 수사를 내면화해 육체와 정신을 개조하여 (준)군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전시총동원 체제기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주어진 길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민지 말 제국-식민지 체제의 통치 권력을 운용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을 포획하고 거기에 특정한 형식을 부여했던 대표적인 장치들은 ‘치안’, ‘고쿠고’, ‘이름’(창씨개명), ‘전쟁’(징병 및 징용)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식민지 조선인들의 ‘황민화’를 둘러싸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포섭하고 그들의 욕망을 주조·제어·보장하는 조건이자 형식으로 작동하였다.⁷⁾ 그리하여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시총동원 체제기 제국과 식민지가 함께 연루되어 있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인 식민지 말 조선문학 또한 ‘고쿠고’, ‘이름’, ‘전쟁’ 등의 장치에 폭력적으로 포섭되었다. 동시에 제국 일본문학이 식민지 조선문학을 그 내부로 통합하면서 문학이라는 장치의 작동 방식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⁸⁾ 전쟁이라는

7) 차승기, 앞의 책, 259-260면. 여기에서 차승기는 푸코와 아감벤에 기대어 ‘장치’를 “살아 있는 개인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 포획되지 않을 수 없는 다층적이고 불균등한 ‘조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 조건 위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주체화의 ‘형식’”(같은 책, 257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8) 위의 책, 271면.

장치에 포섭된 문학은 ‘사실’—각종 전선 기행과 보고 문학에서 세태와 풍속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시국’이 개입하여 만들어낸—을 그 자체로 포착하여 쓰는 기술적 영역으로 이행해갔고, 그때 ‘기술자-작가’가 산출되었다. 그리고 ‘고쿠고’, 내지 문단, 내지 출판자본 등에 의해 조선문학이 여타 식민지 문학과 함께 외지 문학으로 배치되면서 대동아 권역 내 문학을 유통시키는 ‘번역가-작가’가 만들어졌던 것이다.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학계 역시 전쟁 수행을 위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고, 식민지 조선 문학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문예동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식민지 조선 문학계에 요구되었던 것은 전쟁 수행을 위한 고도 국방국가 건설에 문예가를 동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크게 ‘자기수양’과 ‘대중 동원’으로 나뉘었다. 전자에는 내지 성지 순례, 현지 병영생활이나 근로봉사 참여, 지원병 훈련소 견학 및 신사참배 등이 포함되었고, 후자에는 시국적 작품 발표와 지방 강연, 지방문화 현황 보고를 통한 문화정책에의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⁰⁾ 식민지 조선 문학계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재조일본인 문학과 식민지 조선인 문학을 망라하여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 문예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기술자-작가’와 ‘번역가-작가’로서 존재하는 길로 수렴되었다. 전쟁 수행의 당위성과 전장의 전과를 기술하는 문학과 내지문단을 중심으로 포섭된 외지문단 사이의 ‘번역’을 수행하는 역할이 문학자에게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문단이 제국 일본문단으로 통합되어 가게 되었다.

한편,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 대륙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지문학이 일본 문학계의 시선을 끌게 되었다. 특히 근대문학으로서 일본문학이 침체기에 빠져들었다는 진단 속에서 그와 같은 침체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외지문학으로부터 자극을

9) 위의 책, 271-276면.

10) 「文藝動員を語る」, 『國民文學』, 1942.1, 104-105면.

받아 기존 일본문학에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1935년 아쿠타가와상이 제정되고 외지문학이 다수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였다. 때를 같이해 소위 ‘조선 붐’이 조성되었는데, 1939년과 1940년 『모던일본』 조선편이 발간되거나 1940년 『문예』에 〈조선문학특집〉이 마련된 것은 모두 조선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었다. 또한, 일본어로 창작되거나 번역된 조선작가의 작품이 활발하게 내지문단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조선인 작가와 작품의 소개, 내선 문학자들 간의 교류 속에서 조선문단의 지형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으로 포섭·통합되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중앙=일본문학의 발전을 위한 지방=식민지문학으로 위계화되어 위치 지어졌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계에서 ‘국민문학’이 주창되었을 때 “새로운 국민문학의 목표는 개인주의적 입장을 부정하고, 전체주의적인 입장에서 국책에 부응하는 문학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진실로 비상시국 하 일본 신민으로서 철저히 하고, 그와 같은 철저한 정신을 갖”춰야 한다면서 국책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역할과 조선인 문학자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¹¹⁾ 하지만 국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은 언제나 일본문학의 일익으로서 존재할 것을 강제 받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방문학이라는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적인 것)을 일본(적인 것)의 경계(통치역) 안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결국 조선(적인 것)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제국-식민지 체제의 통치 권력을 가능하게 했던 장치들이 문학을 포섭하고, 문학이라는 장치가 ‘기술자-작가’와 ‘번역가-작가’를 산출해 내지 일본문단과 외지 조선문단을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가 엄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11) 「朝鮮文壇の再出發を語る」, 『國民文學』, 1941.11, 104-105면.

러한 한에서 조선문학(조선어)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앞서 김종한과 유사하게 최재서는 “금후 넓은 일본문화의 일익으로서 조선문학이 재출발하는 것, 그때 용어는 크게 다른 것이지만, 로컬 컬러라고 해도 나는 불만입니다. 특수성이라는 것도 그다지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선문학의 독창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¹²⁾라고 하였다. 그가 조선문학의 ‘독창성’을 말했던 것은 일본문학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40년대 초 담론 공간에서 식민지를 포함한 지방문화가 제국 일본의 국민문화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시 동아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담론이 대두하자 기존의 중앙/지방의 이분법적 도식을 비틀어 조선문학이 나름의 독창성을 가지고 일본문학을 포함한 국민문학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일본문학으로의 포섭·통합 과정 속에서도 조선문학이 그 자체로 존재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문학이 곧 일본문학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등식 속에서 조선문학의 독창성은 인정받을 수 없었고, 결국 조선문학은 일본문학이 되어갈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말 주창된 대동아공영권이 제국 일본을 정점으로 동심원적으로 확장해간 제국의 권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국민문학 또한 기존의 일본문학에 외지 식민지문학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제국과 식민지가 함께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차별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 말 조선문학은 체제 협력과 저항이라는 틀을 넘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당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들의 주체로서 자기 기획이나 정체성 구축은 어떻게 (불)가능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

12) 위의 글, 77면.

본어/조선어 창작을 둘러싼 이중 언어 상황 속에 놓인 조선인 문학자의 존재 방식에 시선이 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김사량의 「천마」를 대상으로 식민지 말 조선문학의 이중 언어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 문학자의 주체 분열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천마」에 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져왔다. 먼저 내선일체의 우회적 글쓰기 전략을 통해 일본어 창작과 창씨개명을 비판하고 있다는 논의¹³⁾와 조선인의 민족성을 열등하게 규정하는 식민주의 담론의 양가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탈식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논의¹⁴⁾를 들 수 있다. 또한, 「천마」의 서사가 식민지 말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식민지 공간 분할이 보여주는 신체제론, 지방론, 지방문화 등에 나타난 균열의 지점을 고찰한 논의¹⁵⁾와 같은 맥락에서 미로와도 같은 경성을 현룡의 광기와 유비 관계에서 파악한 논의¹⁶⁾, 경성의 토포스적 의미에 주목해 현룡이라는 식민지 지식인의 분열에 대해 주목한 논의¹⁷⁾ 등이 한 축을 이루었다. 한편, 일본인 되기의 환상 속에서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체험한 현룡의 방향에 주목한 논의¹⁸⁾, 제국 일본의 동화 정책이 오히려 인종적·민족적 차별 인식과 주종 관계를 심화시켜 배타성을 증폭시키는 모순을 지적하며 동화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폭력성을 비판한 논

13) 김재용, 「내선일체의 우회적 비판으로서의 김사량의 「천마」, 『어문론총』 제4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133-152면.

14) 최광석, 「金史良의 『天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日語教育』 제42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7, 175-195면.

15) 이재봉, 「식민지 말기 「경성」과 「조선」이라는 지방 : 김사량의 「천마」가 제기하는 물음, 『코기토』 제73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456-489면.

16) 방민호, 「1940년 경성, 제국의 황혼, 저항의 데카당스, 『춘원연구학보』 제3호, 춘원연구학회, 2010, 187-231면.

17) 김현생, 「김사량 문학세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천마」, 「무궁일가」, 「향수」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7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49-77면.

18)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환상—김사량의 「천마」와 「친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187-205면.

의¹⁹⁾, 나아가 일본인/조선인, 일본어/조선어, 그 어느 쪽에도 포섭되지 않고 배제되는 현룡에 주목해 공동체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성과 그 과정에서의 균열을 고찰한 논의²⁰⁾ 등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천마」의 주인공 현룡이 보여주는 ‘광기’에 주목하는 한편, 일본어/조선어 사이의 이중 언어, 식민지 이중도시로서의 경성의 공간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여 서사적 의미를 독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중 언어 상황과 내지 문단에 통합되어가는 조선문단의 재편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의 존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앞선 논의들이 규명한 것처럼 제국/식민지 사이의 위계화된 권력 구조와 그것이 갖는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질서와 문법을 자기화하는 식민지 문학자의 불안 의식을 확인하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담론 체계 속에서 자기를 재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의 논의를 통해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가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속 조선인 문학자의 주체 분열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중 언어 상황과 언어 밖의 존재

김사량의 「천마」에는 식민지 말 경성을 배경으로 조선문단의 풍경이 흥미롭게 서사화되어 있다. 식민지 이중도시로서 경성이 문화적 혼종성

19) 김수영, 「동화(同化) 이데올로기—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155-180면.

20) 양정임, 「김사량의 「天馬」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벌거벗은 자에 대한 공동체의 시선」, 『동남어문논집』 제35집, 동남어문학회, 2013, 181-205면.

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곳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물들이 자기의 욕망에 이끌리면서 일상을 영위해가고 있는 곳으로 제시된다. 혼돈, 오염, 허위, 기만, 불안 등 전시총동원 체제의 질서와 문법 따위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식민지 말 경성에는 일본인, 재조일본인, 조선인 문학자들도 등장한다. 그들 또한 무료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현재의 조선사회가 낳은 특별한 종족의 하나”²¹⁾일 뿐이었지만, 문학 활동의 자양분을 얻고자 대륙적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 조선으로 건너오거나 내지문단에 번역·소개되는 조선문학이 저열하다고 평가하면서 자신 또한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거나 조선문학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 속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등 나름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선어 창작 문제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 사이의 입장 차이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현룡은 “보기 좋게 애국주의라는 미명 아래 숨어, 조선어로 된 저술은커녕 언어 그 자체의 존재조차도 정치적인 무언의 반역이라고 참무(讒誣)하는 자”²²⁾이다. 도쿄에서 체재했던 15년 동안 조선인임을 감출 수 없어 일본인들로부터 받는 차별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귀족의 아들이자 조선문단의 일류작가라고 허풍을 떨었던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 뒤 음란하고 저속한 글을 써 잡지사에 팔러 다니면서 도쿄문단에서 활약했다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점차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문단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시국잡지 『U』의 책임자인 오무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조선문학과 조선어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던 그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순수한 문화적인 저술 행동도,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는 그 본래적인 예술정신조차 자칫하면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당국의 오해를 받기 쉽다”²³⁾고 여기고 있었고, 그리하여 조선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

21) 金史良, 「天馬」, 『光の中』, 小山書店, 1940, 134면.

22) 위의 책, 140면.

는 철저한 조선어 해소론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에서 현룡이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에 조응하여 변동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고, 식민통치 권력을 내면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행위 어느 곳에서도 전시총동원 체제에 조응해 제국의 신민으로서 자기를 재구축한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는 조선인으로서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위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위해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제국 도쿄/식민지 경성으로 대표되는 중앙/지방의 이분법적으로 위계화된 문화 지형 속에서 지방의 언어인 조선어가 아니라 중앙의 언어인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나는 이미 조선어 창작에는 질렸습시다. 조선어 따위는 쓰레기죠. 그래요. 그건 멸망의 부적이니까요.”²⁴⁾라고 말하는 그의 인식 속에는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의 위상 변동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닌, 조선문단에서 저열한 문학자로 배제되고 있는 자기를 옹호하기 위한, 일본어 창작이 가능한 자로서의 중앙=일본문단에 대한 동경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천마」에 나타난 조선어 해소론자의 입장은 당시 문학장 속에서도 살 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영섭은 『조선인이 나아갈 길』에서 “조선에서 고쿠고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 없이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⁵⁾, “조선어를 폐지하여 고쿠고를 상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조선어를 사용하는 한 조선인은 내지인에 비해 모든 점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본인은 될 수 없을 것이다.”²⁶⁾라고 주장하였다. 내선일체의 핵심적인 방책으로 조선어 폐지를 주장하

23) 위의 책, 140면.

24) 위의 책, 137면.

25) 玄永燮,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聯盟, 1938, 153면.

26) 위의 책, 158면.

고 있는 현영섭에 의하면, 조선어는 일본인에 비해 하위의 열등한 조선인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조선인이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조선어 폐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내가 조선어를 폐지하자고 외치는 것은 국자(國字)를 하루 빨리 개량하고 싶기 때문”²⁷⁾이라고 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점진적 가나 전용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소리글자로서 로마자 채용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선어 폐지에 이어 일본어 개량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완전한 일본어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고쿠고’를 통해 철저한 내선일체를 이뤄 내선인 간의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⁸⁾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천마」의 현룡 또한 단순히 조선어 해소론자의 면모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소설에는 현룡과 달리 조선어 창작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문학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현룡에게 “너야말로 조선문화의 무서운 진드기다!”²⁹⁾라고 일갈했던 평론가 이명식이다. 체제의 전환과 시국에 호응해 현룡을 비롯해 문학자들 사이에서 조선어 폐지론 등이 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문학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이명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어 저술이 이 사람들에게 문화의 빛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혹은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은 논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님니까. 지금도 엄연히 조선문자로 된 3대 신문은 문화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고, 조선문자로 된 잡지나 간행물도 민중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어는 분명히 규슈의 방언이나 도호쿠의

27) 위의 책, 167면.

28) 황호덕, 앞의 책, 96-197면

29) 金史良, 앞의 책, 124면.

방언류와는 다릅니다. 물론 나는 내지어(內地語)로 쓰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언어의 쇼비니스트는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이나 마음이나 예술을 널리 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지어로 쓰는 걸 꺼려하는 사람, 또는 실제로 쓰지 못하는 사람의 예술을 위해서는, 이해 있는 내지 문화인의 지지와 후원 아래, 해마다 좋은 번역기관이라도 마련하여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지어라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붓을 꺾어야 한다든가 하는 일파의 언설 같은 건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³⁰⁾

이 소설에서 이명식은 조선어 창작만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한자문화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근대문학의 성립 이후 지난 30여 년 간 조선어 창작을 통해 조선문학을 발전시켜온 만큼 “문학의 빛, 문화의 싹”³¹⁾을 스스로 매장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80%가 문맹이고,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자 가운데 90%가 조선어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선어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1940년 기준 조선인들 중 일본어 해득자는 총 인구 2,295만 4,563명 중 357만 3,338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7%였다. 이들 중 남성은 24.21%였고, 여성은 약 6%에 그칠 정도로 성비에 큰 불균형을 보였다.³²⁾ 요컨대 전체 조선인의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본어를 해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어 저술 활동을 폐기하는 것은 “문화의 빛을 부여하”는 것도, “민중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고 이명식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명식은 조선어가 내지 일본의 규슈 지방이나 도호쿠 지방의 방언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조선어만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30) 위의 책, 139-140면.

31) 위의 책, 139면.

32) 重光兌鉉, 「國語普及運動의 趣意」, 『春秋』 1942.6, 109-110면.

흥미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론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제국의 권역에 조선어(문화)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일본어를 ‘내지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조선어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내지어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회 기구 속에서 도쿄 또한 하나의 지방일 수 있다는 김종한의 인식처럼, 새롭게 구획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 언어 문화권의 단위를 재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구축해가는 과정 속에서 조선어가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일본어(내지어) 또한 새롭게 갱신해야 할 대상에 놓이게 된다. 동아 제민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 대동아공영권 내 아시아 제민족의 언어(문화)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식민지의 언어만이 아니라, 제국의 언어 또한 하나의 지방어로서 위치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어 창작을 통해 조선인의 생활이나 마음을 널리 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내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해를 위해 문학자를 비롯한 문화 방면의 종사자들이 서로 긴밀히 교섭하고 창작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당시의 내선일체 담론을 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체제의 질서와 담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선어가 필요한 것처럼, 내지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본어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식은 일본어 창작을 하지 못하는 조선인 문학자의 작품을 번역하여 일본문단에 소개할 수 있는 번역 기관의 마련을 주창하기도 하는 등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 창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내선일체의 동화 이데올로기를 전유하여 조선(인, 어, 문화)의 일본화라는 동원의 논리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내선일체의 핵심적인 방편 중 하나

로 일본어 전용이 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내선일체를 위해 조선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명식의 조선어 창작에 대한 입장은 김사량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식민지 말 김사량은 조선어와 일본어 창작을 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문단에서도 조선문단에서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수행해나가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현실을 충실히 써보고 싶다. 얼마나 정곡을 파악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진실한 형상화가 이루어질까. 나에게는 모두 두렵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볼 뿐이다. / 진흙 / 오두막집 / 토성량 / 백성, 학생, 청년 / 어느 하나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³³⁾ “거기에는 조선의 문화나 생활이나 감정을 보다 넓은 내지의 독자에게 호소하려는 동기, 또는 다른 의미에서 말하자면, 조선문화를 내지나 동양이나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 미력하나마 그 중개자의 힘을 쓴다는 동기 등도 있을 것이다.”³⁴⁾라고 말하면서 일본어 독자를 대상으로 조선의 문화나 생활, 감정 등을 호소한다는 창작 동기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광수의 「무명」 등을 직접 일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천마」에서 이명식은 김사량의 페로소나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조선어 해소론자 현룡과 조선어 창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명식을 대비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천마」의 인물 구도, 특히 이명식의 조선어 창작에 대한 인식을 김사량의 그것으로 수용하는 관점에 따르자면, 이 소설의 서사를 일본어 전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일본문단에 진입하고자 하는 조선인 문학자의 욕망에 대한 부인으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장혁주가 「조선의 지식인에게 호소한다」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정의감과 차분함이 결여되어 있고 반목과 질투가 심한데, 그것은 조선문단에서도 횡행한다고 해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오인을 낳은 것에 대해 김사량이 유감을 느껴 「천마」를 통해

33) 金史良, 『金史良全集』Ⅳ, 河出書房新社, 1973, 53면. 초출은 金史良, 「雜音」, 『堤防』, 1936.6.

34) 위의 책, 29면. 초출은 金史良, 「朝鮮文化通信」, 『文藝春秋』, 1940.9.

문학적으로 대응했다는 기존 논의 속에서 명확해진다.³⁵⁾ 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현룡의 모델이 김문집이라는 점에서도 일본어 창작을 통해 조선인을 비하하면서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한 조선인 문학자에 대한 비판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가 일본문학의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문학자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탈식민주의적 전략의 산물로 여겨질 수 있다.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은 일본문학에 포섭·통합되어 해소·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구축되는 대동아 문화권 내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면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문단과 일본문단 모두로부터 배제되는 현룡, 조선어 창작도 일본어 창작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조선어 해소론자로서 그가 어느 곳에서도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가 비록 조선어를 버리고 일본어 창작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일본어 창작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다시 말해 그는 조선어와 일본어의 선택지 중에서 조선어를 버리고 일본어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그에게 언어의 선택은 주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천마」에서 현룡과 이명식의 대비적 인물 구도를 통해 조선어 창작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주목되는 것은 현룡이 발화하고 있는 언어가 조선어/일본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너머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문소옥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이 다녀온 신마치(新町)를 ‘노이에 슈타트’라고 말하거나, 프랑스 여성 안나를 만나 “봉 주르, 트레 비엥, 보 가르송, 스 스와르 어찌구, 알고 있는 모든 프랑스어를 총동원해서 떠들었”³⁶⁾던 그에 주목하자면, 그는 제국-식민지 체제의 언어 밖에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그것은 그 자체

35) 광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194-195면.

36) 金史良, 「天馬」, 앞의 책, 149면.

로 의미 없는 언어이다. 즉, 현룡이 자기를 현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제국-식민지 체제의 언어 질서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김사량의 「지기미」에서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자가 “회—잇, 오끼로 오끼로!”³⁷⁾라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외치면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양상을 떠올리게 한다. 요컨대 「천마」의 현룡은 「지기미」의 지기미처럼,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통해 자기 존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룡은 조선어 창작을 폐기하고 일본어 창작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자기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조선인 문학자가 아니다.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식민지 조선어와 제국 일본어의 사이, 또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이다. 조선어도 일본어도 아닌 언어, 그것은 제국-식민지 체제 아래에서는 그 자체로 성립 불가능하다. 그가 조선문단과 일본문단 모두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중 언어 상황에 놓인 조선인 문학자에게는 조선어를 해소하고 일본어를 선택하는 길과 조선어와 일본어를 모두 창작하는 길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느 쪽이든 제국/식민지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조선어도 일본어도 아닌 언어, 존재 의의를 갖지 않지만 말해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 자기를 말하는 현룡을 통해 언어 질서 밖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언어=권력 앞에서 분열하는 주체의 모습이자 언어가 결코 주체를 포획할 수 없는 지점을 보여준다.

37) 金史良, 「지기미」, 『三千里』, 1941.4, 262면.

4. 분열하는 주체의 불안과 광기

김사량의 「천마」가 발표된 이후 그에 대한 내지 일본문단의 평가는 김사량의 의도를 벗어났다. 내지 일본인 문학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이 소설이 '민족적 자학성'을 드러냈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대립을 다뤘다는 데 있었다.³⁸⁾ 이러한 평가에 대해 김사량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증오해야 할 주인공을 잘도 횡행하게 놔두는 사회를 저주하고, 더욱이 그러한 인물을 보고 조선인 전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중략)… 하지만 이러한 점도, 내지 사람들이 진정으로 조선 사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 사람의 승합차에 잠시 앉아보고는 제멋대로 비평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³⁹⁾라고 하였다. 현룡의 광기와 분열에 주목해 민족적 자학성을 드러냈다는 평가에 대해 김사량은 거리를 두면서 그와 같은 인물이 횡행할 수 있는 사회를 비판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도를 초과해 비판하는 평가는 결국 식민지 조선(인, 사회)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사량은 일본어 창작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충실하게 그려내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을 단순히 현실 재현의 완결성 차원이 아니라, 언어 앞에 분열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와 관련해 「천마」에서 다시금 주목되는 인물이 현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내지인과 마주 앉았을 때는 일종의 비굴함에서 조선인의 험담을 있는 대로 늘어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야만 비로소 자신도 내지인과 동등하게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⁴⁰⁾ 자이다. 스스로 조선인임을 부정하고 일본이 되고자 하는 욕

38) 광형덕, 앞의 책, 196면.

39) 金史良, 「朝鮮文化通信」, 『現地報告』, 1940.9. 광형덕, 위의 책, 197면에서 재인용.

망을 가지고 있는 그는 기실 일본문단에서도, 조선문단에서도 배제된 존재이다. 과거 관료 출신이었던 『U』지의 책임자인 오무라가 일본에서 막 건너온 뒤 조선문화의 사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의 허풍에 넘어가 시국 담론을 선전하는 데 일정 부분 그를 이용했던 것일 뿐, 그는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흥미롭게도 그 또한 자신을 빈대에 빗대면서 뻔뻔함이 닮았다고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의 거짓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현룡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광기에 사로잡힌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그려진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신을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이라고 말한다. “조선이라는 현실에서 바로 자신과 같은 인간이 태어나고, 또 사회 안을 활개치고 다니는 일이 용납 되었기 때문이다. 혼돈에 찬 조선이 나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여 만들어 내고, 지금에 와서는 역할을 다하자 십자가를 지게 하려는 것이다.”⁴¹⁾ “자기야말로 그 농사꾼처럼 구원 없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며 몸 부림치는 인간”⁴²⁾이라는 현룡의 자기 인식에는 일정 부분 자기 환멸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천마」에서의 서술자 또한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회가 그를 갈수록 혼미로 몰아넣은 것”⁴³⁾이라며 그의 광기의 원인을 조선사회로부터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식민지 말 조선사회는 전시총동원 체제하 내선일체 이념과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기치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때였다. 그런 점에서 일본인-되기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룡은 체제의 질서와 문법에 순응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인 것처럼 보인다.

40) 金史良, 「天馬」, 앞의 책, 171-172면.

41) 위의 책, 155면.

42) 위의 책, 162면.

43) 위의 책, 146면.

하지만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존재 의의를 발견하지 못한다. 소설 속에 나타난 당시 조선문단의 상황을 확인해 봐도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도쿄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니카는 소위 ‘대륙적 기분’을 획득하여 일본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주 여행길에 나섰다. 경성에 들린다. 경성에서는 그는 오무라를 비롯해 관립 전문학교 교수인 가도이 등을 만나는데, 그로부터 ‘지방적인 조선문화’의 저열함에 대한 말을 듣는다. 이후 식민지 이중도시인 경성에서 조선인들이 출입하는 술집을 찾고 그곳에서 현룡을 만난 뒤, 조선인의 민족성을 혈똥는 그를 보고 “조선 지식계급의 자기반성이라고 내지에 알려야겠다”⁴⁴⁾라고 생각한다. 현룡이 곧 조선의 청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가도이의 조롱을 전해 듣고, 현룡의 조선인에 대한 폄훼의 말을 조선인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니카의 시선이 가능한 것은 내지 문학자로서의 우월감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일본인 문학자의 조선 인식의 피상적인 수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이후 신일본문학을 건설하기 위해 대륙을 알아야 한다는 유행에 따르는 어리석은 행태일 뿐이다. 도쿄문단의 다니카도, 그리고 경성문단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재조일본인 가도이도 결국 조선의 현실을 옳은게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현시하려고 하는 현룡의 욕망은 달성 불가능하게 되고, 그의 존재 의의는 마련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문학자로서 체제 협력적인 일을 하다 버려져 불안감 속에서 광기에 휩싸인 존재로서 현룡을 단정 짓는 것은 이 소설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현룡의 불안은 일본인-되기의 수행적 과정에서 실패한 자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의 조선인으로서의 자기 탈각과 일본인-되기는 처음부터 봉쇄

44) 위의 책, 172면.

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가 조선어 해소와 일본어 전용을 주창한다고 해서 일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실 그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존재로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속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셈이다.

스스로를 범상치 않은 예술가로 자처하고 있는 현룡은 무지한 민중과 예술의 고귀함을 모르는 인텔리들로 인해 자신이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간의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 취급하여 상대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든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진정한 천재야말로 속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법이라고 큰소리쳤다.”⁴⁵⁾ 주위의 비난과 조롱을 천재 예술가에 대한 무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는 그는 나아가 순교자로서 비통한 운명을 느끼면서 “자신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인의 고민과 비애를 한 몸에 짊어지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기분”⁴⁶⁾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참혹한 죽음을 떠올리기도 하는 한편,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면서 살고자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기 파탄 속에서의 절망이 쓸모가 다해 버려진 인간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서의 광기의 발산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룡의 불안과 광기는 개인적인 층위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문단)과 조선(문단)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었던 자가 체제의 질서 속에 투신하여 자기를 재정립하는 길이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가 체제 밖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는 그러한 인간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45) 위의 책, 148면.

46) 위의 책, 155면.

“요보!”

“요보!”

하고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순간 겁에 질린 듯 귀를 막고 도망치면서 외쳤다.

“요보 아냐!”

“요보 아냐!”

그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생긴 오늘날의 비극에서 발버둥쳐서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다.

...(중략)...

“이 내지인을 구해줘, 구해줘!”

그는 숨을 쉰썩거리면서 외친다. 그리고 다시 다른 집으로 달려가서 대문을 두드린다.

“문 열어, 이 내지인을 들여보내줘!”

다시 뛰기 시작한다. 대문을 두드린다.

“이제 난 요보가 아냐! 겐노가미 류노스케다, 류노스케! 류노스케를 들여보내줘!”⁴⁷⁾

조선인을 멸시하는 천칭인 ‘요보’로 호명되기를 거부하면서 현룡은 내지인인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스로 겐노가미 류노스케라고 절규해본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저열한 조선인 문학자일 뿐이다. 일본에서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조선에서는 문학자들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상태를 벗어나 자기를 현시하기 위해, 자기 망상에 사로잡혔던 그는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이 아니다. 그가 일본인-되기의 욕망을 발현하면 할수록 그는 조선인들로부터도, 일본인들로부터도,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뿐이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전시총동원 체제의 질서와 문법이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

47) 위의 책, 190-192면.

게 구축하는 데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언어가, 일본인-되기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제국의 언어이자 문화어인 고쿠고가 그의 주체의 기획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언어 앞에서 주체는 분열—주체는 언제나 언어에 미달하거나 그것을 초과한 상태에서만 언어와 만날 수 있다—하지만, 식민지 말 조선인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조건들 중의 하나인 고쿠고(국어, 일본어)가 역설적으로 존재의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식민지인이 제국의 언어를 말한다 고 해서 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의 모방의 언어는 제국과 식민지 그 어딘가를 배회할 뿐인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말 이중 언어 상황은 제국 일본어/식민지 조선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면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틈' 속에서 분열하는 주체를 발생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사량의 「천마」에 나타난 현룡의 광기는 바로 이러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식민지 말 문학자의 존재 방식

이 글에서는 김사량의 「천마」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 언어 상황과 내지 문단에 통합되어가는 조선문단의 재편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의 존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기 조선인들의 삶을 포획하고 거기에 특정한 형식을 부여했던 대표적인 장치들 중 고쿠고가 작동하고 있었고, 조선어 폐지와 일본어 전용이 조선문단에서 논의되는 한편, 식민지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이 내지 일본문학에 통합되어가고 있었다. 전쟁 수행을 위한 동화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기를 구축할 수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제국-식민지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는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국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문학의 일본문학으로의 복속을 말하는 식민지 문학장 내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식민지 말 조선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이중 언어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대체로 그것은 일본어/조선어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국-식민지 체제의 질서와 문법의 작동 속에서 언어 권력과 언어적 실천을 파악하게 한다. 하지만 당시 국책으로서의 일본어 전용의 논리는 상이한 계급·젠더·지역·연령의 차이를 지닌 집단들을 교화하고 황민화해야 하는 현실의 논리와 충돌하거나 모순을 낳는다. 이념으로서의 일본어 전용과 실제 차원에서 조선어 사용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상 병행되었다. 그리하여 전시총동원 체제하 언어 공간은 언어적 차이를 지닌 집단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언어가 사용되는 복합적인 정보 생산과 소통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즉, 전시총동원 체제하 언어 공간에는 단순히 일본어와 조선어라는 이항 대립이나 이중 언어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계급·젠더·연령의 차이에 따른 혼종적 언어 집단이 일본어를 통한 정보 전달이라는 국책의 이념과 기이하게 결합하여 언어적 굴절을 만드는 복합적 상황 또한 존재했던 것이다.⁴⁸⁾ 요컨대 일본어와 조선어로만 이루어진 이중 언어적 언어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식민지 조선의 문학 장에서 문학 창작을 위한 언어로는 일본어와 조선어가 제시된다. 김사량은 조선어 폐지와 일본어 전용이 주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어와 일본어, 두 개의 언어에 의한 창작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천마」에서 이명식의 입을 빌어 주창한 것처럼, 제국의 언어와

48) 권명아, 「내선일체 이념의 균열로서 언어 : 전시동원체제하 국책의 '이념'과 현실 언어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형택·한기형·류준필·이혜령 엮음,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483면.

식민지의 언어는 일본인과 조선인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해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내선일체의 이념을 전유해 조선어 폐지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어와 조선어의 이중 언어 창작은 결국 제국-식민지 체제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제국 일본인 문학자들에게 조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함양하고, 조선(어, 문화)을 새롭게 구축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속에 재정립하려고 하는 욕망은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 등 동화 이데올로기 속에서 증폭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국 일본이 곧 대동아로 등치되는 전시총동원 체제가 그것은 언제나 식민지 지방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내면화해 제국적 주체로서 자기를 갱신하는 체제 협력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그것은 전시총동원 체제가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일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이어진다. 식민지 말 이광수의 행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다. 제국-식민지 체제의 동화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인들로 하여금 식민자를 모방하게 하지만, 결코 식민자의 지위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김사량의 「친마」에서 현룡이 ‘요보’로서 조선인임을 부인하고, 내지인이 되고자 했지만, 결코 그것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식민자를 모방하는 피식민자의 욕망은 체제의 질서와 문법에 의해 강화될 수 있지만, 바로 그 체제의 질서와 문법은 언제나 제국/식민지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초과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있다. 조선어 전폐와 일본어 전용을 주창하고 있는 듯 보이는 현룡의 면모는 제국의 통치 권력을 앞장서 말하고 있는 피식민자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는 내지 일본문단에서도, 식민지 조선문단에서도 배제될 뿐이다. 따라서 그는 언어 질서 외부에 위치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언어 질서에 의해 자기 존재를 구축하거나 증명하지 않는다. 오

히려 그는 일본어와 조선어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재상산하거나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언어를 통해 자기의 존재 의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가 허위와 망상, 불안과 분열에 휩싸여 있는 것은 일본인-되기의 과정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 언어 질서의 밖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쓸모가 다하자 버려졌다는 그의 인식, 순교자로서의 자기 규정은 모두 전시총동원 체제가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광기는, 무의미한 그의 언어들은 의도치 않게 체제 너머의 인간 존재를 상기시킨다. 「천마」의 현룡처럼 광기에 사로잡혀 분열하는 주체의 흔적들을 통해 체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國民文學』 『春秋』
 金史良, 「天馬」, 『光の中に』, 小山書店, 1940.
 金史良, 「지기미」, 『三千里』, 1941.4.
 金史良, 『金史良全集』 IV, 河出書房新社, 1973
 玄永燮,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聯盟, 1938.

2. 단행본

권명아, 「내선일체 이념의 균열로서 ‘언어’ : 전시동원체제하 국책의 ‘이념’과 현실 언어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형택·한기형·류준필·이혜령 엮음,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광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오테영, 『오이디푸스의 눈—식민지 조선문학과 동아시아의 지리적 상상』, 소명출판, 2016.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그린비, 2016.
 황호덕, 『벌레와 제국—식민지 말 문학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 2011.
 松本武祝, 「戰時期朝鮮における朝鮮人地方行政職員の「對日協力」」,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7: 支配と暴力』, 岩波書店, 2006.

3. 논문

김수영, 「동화(同化) 이데올로기—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155-180면.
 김재용, 「내선일체의 우회적 비판으로서의 김사량의 「천마」」, 『어문론총』 제4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133-152면.
 김현생, 「김사량 문학세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 「천마」, 「무궁일가」, 「향수」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7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49-77면.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환상—김사량의 「천마」와 「천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187-205면.
 방민호, 「1940년 경성, 제국의 황혼, 저항의 데카당스」, 『춘원연구학보』 제3호, 춘원연

구학회, 2010, 187-231면.

양정임, 「김사량의 「天馬」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벌거벗은 자에 대한 공동체의 시선-」, 『동남어문논집』 제35집, 동남어문학회, 2013, 181-205면.

이재봉, 「식민지 말기 ‘경성’과 ‘조선’이라는 지방 : 김사량의 「천마」가 제기하는 물음」, 『코기토』 제73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456-489면.

최광석, 「金史良의 『天馬』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日語教育』 제42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7, 175-195면.

<Abstract>

The Bilingual Situation and the Division of the Subject at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Oh, Tae-Young

In this article, by targeting Kim, Sa-ryang's "Cheonma", I looked into the way of existence of colonial Joseon litterateur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the Joseon literature that is being integrated into the Japanese literature and the bilingual situation. The spread of the assimilation ideology for warfare during the period of total mobilization at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aroused the desire of the colonists to overcome the restricted and closed status and build a new self. However, the hierarchical and discriminatory structure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y persisted. Despite the emphasis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Joseon literature as a national literature, this was repeated even within the colonial Joseon literature center, which spoke of the subordination of Joseon literature to Japanese literature. Kim, Sa-ryang emphasizes the need for creation in two languages, Korean and Japanese, in a situation where the abolit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use of the Japanese language are advocated. However, the bilingual creation of Japanese and Korean only reproduced the hierarchical and discriminatory structure of the imperial-colonial regime. Therefore, it is worth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way of human existence that exceeds the order and grammar of the regime. This is the point where we can critically think about the regime through the traces of the subject who is seized by madness and is divided

like Hyeon-ryong in “Cheonma”.

Key words: wartime mobilization system, literary field, bilingual, subject, division

투 고 일: 2022년 2월 25일

심 사 일: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3월 20일